

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, 하계 휴가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현장 점검

-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

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0일(월)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휴가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.

남 차관은 여객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승객 이동 동선을 직접 둘러보며 비상대피로, 소화·구명설비, 안전난간 등 여객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살폈다. 또한 이용객과 터미널 근무자의 폭염 대응을 위한 냉방시설, 휴게 시설도 점검하였으며, 섬 주민과 일반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.

남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“폭염 속에서도 섬 주민과 여행객의 이동권 확보와 섬 지역 생필품 수송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,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하며, “최근 39년만에 허용된 서해 5도 야간운항 시 승선객의 편안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심상철 (051-773-573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현 (051-773-5243)